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19, 서신서 장르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구약성서의 예언 장르를 논의하면서 우리는 학자들이 예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자주 구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특히 해석학 유형이나 성경 해석 유형 교과서에서 예언 문학이 수행하는 작업을 설명하는 공통 언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구약의 예언이 기본적으로 미래를 암시하는 것, 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은 언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선지자들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과정을 예측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무를 어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돌이키고 지키지 못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약 관계에 순종하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들이 일부 학생들이 예언이라고 부르는 일, 즉 미래를 약속하거나 예상하거나 예측하는 일에 실제로 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주의 종말과 전 세계의 종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될 더 먼 미래와는 반대로 독자들의 눈앞에 있는 즉각적인 미래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말론으로 알려진,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된 것들.
그러나 나는 또한 예언 본문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한 추측을 인식하고 예언
본문이 성취되는 다양한 방식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미가 2장이나 마태복음 2장의 미가 5장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해 이미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족이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의 예언이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구약성서의
저자가 반드시 먼 미래에 있을 특정 사건을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구약성서
본문에서 사람이나 사건 또는 어떤 것을 발견하는 유형론적 또는 유추적 성취
유형을 봅니다. 반복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에 비추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 더 큰 방식으로 선택되고 반복되는 모형이나 패턴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하에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유사하지만 더 큰 방법으로 새
언약 하에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때로는 매우 간단한 성취를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유추적이거나 유형적인 성취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때로는
신약성서 본문이 구약성서에서 묘사된 것처럼 직접적인 물리적 또는 문자적
방식이 아닌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성취를 묘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잘 알려진 사도 회의나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토론하고 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복종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인용문을 발견합니다.

16절과 17절은 흥미롭게도 구약의 아모스 9장과 11절을 인용한 것으로,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기대 또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사도행전 15장에 인용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며, 그 폐허도 다시 짓고 회복시켜서 남은 사람들과 그 일을 맡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리라 . 이름은 이런 일을 행하시고 오랫동안 알려져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흥미롭게도 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미 성취된 다윗 왕조의 회복과 열국에 대한 통치권을 기대하는 아모스 본문의 성취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미래에 더욱 엄격하게 물리적인 또 다른 성취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신약성경 저자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언급을 자주 발견한다는 것인데,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교회의 초림에서 자주 성취되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본문이 신약성서에서 어떻게 선택되는지 고려할 때 성취의 또 다른 특징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모두에서 성취될 본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성취를 예상하는 특정 구약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해당하는 두 단계를 거쳐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예수님은 성취를 시작하셨고, 재림에서는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성취에 대한 신약의 이해나 종말론에 대한 신약의 이해로 요약됩니다. 즉, 구약성서가 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지막 절정 사건으로 자주 기대했던 것을 신약성서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다. 한 부분은 그것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해당하고, 두 번째 부분은 그것을 결론짓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당신은 예언서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모두에서 성취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취 측면에서 예언 문학에 관해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또는 우리 시대의 특정 사건이 구약의 예언 본문의 성취인지 여부와 우리가 그 예언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 추측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그런 추측으로 끝나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주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언이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우리는 예언이 매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것이 모델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그분의 재림 때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조심하고 추측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시 매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구약의 예언이 그에게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소매에 몇 가지 트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비밀을 갖고 있거나 매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전히 분명한 성취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과 예언과 일치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갈 때 성취의 다양한 유형을 인식하십시오. 분명히 나는 더 많은 유형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특정 예언이 종말론적 완성에서만 성취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특정 예언과 심판으로 인한 우주의 해체, 완전히 새로운 우주,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창조, 그러한 예언 중 일부는 종말론적 완성에서만 성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성경 본문에서 발견되는 성취의 다양한 유형을 인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언 문학과 예언 본문 해석에 관해 마지막으로 말해야 할 원칙은 예언 본문의 일차적 기능과 목적이 거룩한 삶에 대한 격려와 경고 또는 격려와 권면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예언서의 주요 목적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히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예언적 본문은 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는 예언 문학에 대한 해석은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백성이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권고하시는 예언서로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문학적 유형 중 소수를 살펴보았으며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서사 비평의 서사 기법과 스토리 기법 중 일부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시와 시적 문학 유형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문학 형식이나 장르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법률이나 법률, 이스라엘의 율법, 법률 문학 및 예언 문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나아가서 신약성서와 신약성서 문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학 장르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히 동질적인 단일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학적 형식과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분명히 보여 주는 문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의 백성에게 어떤 문학적 매체나 어떤 문학적 형식을 취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신다면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 매우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문학 형식과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구약성서를 광범위하게 구성하는 세 가지 문학 장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약성서에서는 세 가지 장르가 서술형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문학적 형식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를 사도행전과 구별할 것이고 나는 사도행전을 토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 특히 복음서를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추가 요소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종의 문학이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문학 형식 또는 문학 장르는 복음서와 이야기 문학 다음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이나 서신일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이나 바울의 편지의 형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시록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 일종의 독특한 문학 형식으로, 실제로 두세 가지 문학 유형의 조합이고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일으키거나 제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방식으로요. 그러나 다른 말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설화나 서간 문학과 같은 문학 형식 중 일부와 유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에 읽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1세기에 편지나 이야기, 이야기를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사점이 있지만 고대 이야기와 현대 전기 또는 고대 서한 사이의 차이점과 그것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도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편지와 비교.

그래서 다시 한 번 복음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서 해석에 대한 추가 설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사비평과 문학비평에서 성격, 줄거리, 구조 등을 살펴보고, 텍스트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문화적 참조를 밝히는 등 서사적 접근 방식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료를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신약성경의 이야기, 특히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추가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특징 중 하나는 복음서의 문학 장르를 동일시하는 것이 역사성과 관련된 문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는 종종 허구적인 특정 유형의 문학 장르로 분류되어 왔으며 때로는 복음서

작가들이 주로 신학에 관심을 가졌던 복음의 역사성에 대한 함의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학의 역사 분리에 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를 특정 문학적 형식, 특히 허구적 형식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복음서 작가들이 신뢰할 만한 역사를 쓰지 않거나 역사를 쓰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때때로 복음서 장르의 식별은 복음서의 역사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와 신약성서의 서술 문헌과 관련된 몇 가지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복음서를 가장 일반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중 첫 번째는 1세기 그리스-로마 전기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관습을 따르고 1세기 그리스-로마 전기가 전달했을 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1세기 그리스-로마 전기의 어떤 형태로 식별되는 경향이 더 많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복음서는 신학 전기라는 것이 더 나은 분류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나 심지어 사도행전을 신학적 전기로 식별하는 것의 의미 중 하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역사적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학적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자들은 단순히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역사적 연대기를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학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편집 비평과 같은 것을 통해 그것을 밝혀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다른 복음서 작가들과 비교하여 저자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방식에서 마태 마가, 누가 또는 요한의 신학적 의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복음서의 조화가 어느 정도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확립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복음서 작가들의 뿌리가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신학적 의도를 밝혀내야 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문단을 생각해 보면 연설 외에는 복음서가 문장에서 문장까지 그렇게 긴밀하게 짜여진 논증 위에 세워진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조항 대 조항. 그러나 그 이상은 이야기와 단락의 다양한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서에서는 단락 수준에서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의 단락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연설에서는 연설의 논리와 논증을 따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여 각 복음서를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독특하고 독특한 기여가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들은 비록 전기이긴 하지만 저자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그 저자의 독특한 기여가 무엇인지 보고 인식하기 위해 본문과 복음서를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읽어야 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관점은 무엇인가.

나는 신약성경의 정경에 네 개의 복음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의 공식적인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갖지 못했습니까? 실제로 Diatessaron이라는 문서에 그런 일을 시도한 개인이 있습니다.

교회 초기 몇 세기 동안 타티안(Tatian)이라는 개인은 흥미롭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비기독교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복음서를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그리스도의 삶, 하나의 복음을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코 인기를 끌지 못했고 교회가 네 가지 다른 복음서를 허용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복음서의 네 가지 뚜렷한 공헌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조화시켜 하나의 복음으로 만들고 다시 조화를 이루기 전에 복음서의 완전성을 이해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다양한 복음서들이 정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복음서 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것이 선택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애나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의 맨 끝 부분으로 가면 그는 실제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어떤 문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랄 수 없다는 좌절감을 거의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작가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모든 정보 중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것을 신학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서로 다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별적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초기 생애와 사역, 죽음과 부활까지 대략적인 연대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연대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복음서 저자들이 다른 자료를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필자들이 연대순보다는 주제별 또는 논리적으로 자료를 배열하는 데 더 관심을 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서대로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마태 자신이 이것이 발생하는 순서 또는 실제로 발생한 순서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입니다. 대신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를 증거하는 이야기를 모으는 데 더 많은 주제적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과 3장 또는 마가복음 2장과 3장의 더 큰 부분에서 우리는 아마도 마가복음 2장과 3장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지 않았음을 다시 제안하는 예수와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의 일련의 논쟁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마크는 다양한 형태에 따라 좀 더 주제별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수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를 모아서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 저자들은 때때로 엄격한 연대순이 아닌 주제별로 자료를 더 정리하여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포함하는 내용을 매우 선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 마가와 누가를 비교하면 분명히 각 복음서 작가, 특히 마태와 마가 또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에서 찾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둘 다 선별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철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들의 신학적 요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세기 그리스-로마 전기에 적절했습니다. 그렇게 쓰셨네요.

우리가 언급한 복음서 해석과 관련된 마지막 원칙은 특히 예수의 연설이나 심지어 사도행전의 인물들의 연설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저자가 실제로 말한 모든 내용을 한 단어씩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요약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저자들이 적어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리스어 번역에서 포착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저자가 말한 내용의 정확하고 정확한 표현을 기록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1세기 전기에서 전적으로 적절하고

표준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요약이 저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포착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수용 가능하고 적절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누군가의 연설을 시작하고 끝내거나 다른 문서에서 가져온 내용을 인용부호로 묶어 표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도 바꾸지 않았다면 실제로 인용 부호는 1세기 연설 녹음의 특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시 말하지만, 영어 번역에서 발견한 인용 부호는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었을 것이며 단지 복음서 작가들이 다른 사람의 연설을 녹음하거나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모든 것에 대해 한마디씩 설명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신약성경의 문서들, 특히 복음서들은 지금보다 50배, 60배, 70배, 심지어는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나는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을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앉아서 산상수훈을 좋은 영어 번역으로 읽는다면, 읽는 데 아마도 10~15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단지 10~15분 동안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지만 아마도 그의 설교는 그럴 것입니다.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요약하는 한,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것은 1세기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정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특히 서술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문학의 종류인지, 문학의 종류가 그 역사성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신학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자의 신학적 의도를 이해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보고하고 연설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이해합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논의할 신약성서의 다음 문학적 유형은 서간서적 문학, 즉 신약성서의 편지들이다. 이것은 내러티브와 함께 다음이지만 내러티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 시대, 기술 시대에 매우 짧은 암호화된 형태의 문자 메시지, 심지어 이메일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빨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등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긴 이야기를 소화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점점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를 제외하면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거나 가장 가까운 비유를 갖고 있는 신약성경의 문학적 형식은 편지나 서신일 것입니다. 편지와 서신은 1세기에 매우 일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보, 모든 유형의 정보, 사실상 모든 것이 서신이나 편지의 형태로 전달될 수 있으며 저는 이 둘을 구별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편지와 서신을 자주 구별하였지만 나는 그 둘을 구별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것이 서신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이었습니다.

더욱이 서신은 저자의 존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저자가 독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신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선택이었습니다.

작가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서신을 쓰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신서에서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 수단, 즉 시적이거나 은유적인 유형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보다 교훈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신서에서도 비유적인 언어 사용이 자주 발견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적 화법이나 시의 활용을 찾아본다. 때로는 은유적인 유형의 언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 전체를 단순히 예술성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직설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나 다른 유형의 문학보다 더 직접적이고 산문적인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신서 전체에 걸쳐 예술적인 표현, 때로는 시적이거나 심지어 은유적인 언어 사용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서신을 논의할 때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서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서신의 간헐적 성격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즉,

서신서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매우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응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문제, 특정 문제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확립되고 세상과 다른 가르침에 직면하면서 1세기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약성서의 편지들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가끔 그렇습니다. 즉, 편지는 단순히 편지 형식으로 표현된 추상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또는 누구든지 그냥 앉아서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개요를 쓴 다음 편지 형식으로 서론과 결론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는 더 목회적이거나 실천적인 신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상황과 상황을 다룬 신학이다.

즉,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모든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신학에 비추어 신학적으로 대응한다. 그들의 신학은 본문에서 해결되거나 특정 문제와 특정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본문에 제시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신서들은 매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조직신학 같은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목회신학을 더 많이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의 매우 구체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신학.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된 상황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바울의 편지 중 하나를 다루고 있다면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편지 쓰기를 촉진시켰다. 당신은 그 편지가 나오게 된 계기를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은 우리를 역사적 비판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즉, 문서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낳은 역사적 상황.

그리고 그것은 가끔 있기 때문에 편지에서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그냥 앉아서 편지를 쓰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랬지만 그는 앉아서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편지를 쓰게 만든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와 같은 문서를 집어 들었다면 일련의 문제 또는 일련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1세기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 로 인해 바울은 자신이 했던 모든 다른 정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일련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바울이 교회를 떠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일련의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입소문이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떤 문제를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일련의 문제들을 분리하여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부르는 바울의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실제로 그가 입에서 나온 말과 고린도서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된 문제들을 다루며,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더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편지를 쓰게 된 상황, 전반적인 상황, 또는 바울이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뒤에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재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학자들은 흔히 이 거울을 글자를 읽는 거울이라고 부른다. 즉, 문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야기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울로 간주됩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상황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접근 방식은 반응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반영되거나 반사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편지를 쓴 이면의 상황이 어땠을지 편지 자체를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유형의 접근 방식에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 방법은 갈라디아서 자체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울 읽기는 편지 자체를 읽는 것에 기초를 두고 편지에서 나온 단서를 바탕으로 바울의 편지나 다른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등의 뒤에 있는 상황이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서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비유가 있지만 아마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학 교과서나 바울 서신에 대한 토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내 수업. 그 중 하나는 신약성서의 편지를 읽는 것이 다른 사람의 메일을 읽는 것과 비교할 수 있으며, 더 정확하게는 오늘날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읽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메일 중 하나가 화면에 표시된다면 나는 이전 대화나 이전 이메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그 이메일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문서를 읽고 있으므로 그 일이 발생한 배경을 가능한 한 많이, 최대한 명확하게, 최대한 완전하게 복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독자는 누구입니까? 위기는 무엇이었나요? 바울이 앉아서 이 편지를 쓰게 만든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에 대한 그 편지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비유는 전화 대화의 한쪽 끝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과 같으며,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듣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당신은 줄의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겪었던 문제나 이전 교환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한 사람 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만든 문제, 애초에 전화 대화가 일어나게 만든 문제를 모릅니다 .

하지만 흥미롭게도 때로는 누군가의 대화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어떤 문제, 심지어 상대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답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이 두 비유는 학자들이 편지나 서신의 간헐적 성격이라고 부르는 간헐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매우 특정한 경우, 또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지에 관한 해석 과정의 주요 목표 또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 편지를 야기한 상황, 기회, 문제 또는 문제를 어느 정도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역사적 재구성이나 역사적 비평에 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골로새서의 편지를 살펴보았고, 먼저 골로새서가 실제로 특정한 거짓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거짓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요약했지만 확실히 당신이 골로새서를 이해하고 읽는 방식은 어떤 면에서 당신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성서 문서는 단순히 다양한 신학적 주제에 대한 저자의 신학적 성찰이나 저자의 신학적 신념의 개요가 아니라, 오히려 실천적이거나 목회적인 신학, 즉 첫 번째 시대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신학적 반응입니다. 세기교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저자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할 편지 쓰기에 대해 언급할 또 다른 사항은 1세기에 편지를 쓰는 빈번한 방식이 어디에나 있었고, 아니면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비서, 즉 일종의 비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전 제작의 매우 인간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1세기 작가들은 대서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 혼자 앉아서 편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종종 서기관이나 서기관처럼 어느 정도 받아쓰게 했고, 그러면 그 서기관은 지시받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이것이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 장을 읽으면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르면 맨 끝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 그리고 그것은 역시 1세기 편지의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더디오는 아마도 바울의 서기관, 즉 서기였을 것이며 로마서의 편지를 받아쓰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디오 자신이 22절에서 독자들에게 인사하면서 그 편지에 자신의 논평을 덧붙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1세기 편지의 또 다른 측면은 서간체 구조입니다. 즉, 1세기의 편지들은 어떻게 조합되었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깨달아야 할 한 가지는, 적어도 내가 알 수 있는 한, 특히 바울의 서신들과 심지어 바울의 서신들, 예를 들어 심지어 베드로의 서신들, 그리고 1세기 서신들 사이의 차이점 중 하나는 길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1세기 편지, 즉 사본, 예를 들어 파피루스에 적힌 편지는 길이가 훨씬 짧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차이점 중 하나는 일반적인 1세기 서신보다 훨씬 긴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1세기의 많은 편지의 길이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전형적인 서간체 구조에는 다음 다섯 가지 요소의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인사말로 자신과 독자의 신원을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소개 또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x는 저자이고, 편지의 저자는 y인 수신자에게 인사를 전하며, 종종 신약성경 저자들은 인사말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확장합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종종 그들은 소개와 인사말을 확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기간 또는 섹션이 이어지며, 여기서 저자는 때때로 그리스-로마 신들에게 받는 사람의 건강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신약성경의 저자들, 특히 바울은 독자들과 관련된 어떤 일들에 대해 성경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나 인사말을 하고 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주요 이유인 편지의 본문이 뒤따라 주요 내용을 전달합니다. 적어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 뒤에 자주 알려진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paranasis 또는 신체의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권고 섹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명령이자 권고입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로마서 16장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작별 인사가 뒤따르고 때로는 특정 개인의 인사말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를 한 예로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을 다소 밀접하게 따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1장, 2장과 1절과 2절은 서론과 인사말인데, 여기서 바울은 전형적인 형식으로 다시 바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이러한 요소들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장과

3장부터 23장은 감사에 해당됩니다. 비록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약간 다른 것을 행했지만, 거기에는 유대인의 바라카 또는 축복에 해당하는 맨 처음에 축복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찬송받으리로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감사로 합쳐져 독자들의 삶의 특정 측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마도 2장과 1절에서 때로는 까다로운 일이 있는데, 때로는 바울의 편지 중 일부에서 본문이 시작되는 곳을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 골로새서는 바울이 언제 감사에서 몸으로 합쳐졌는지 명확하지 않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나는 그가 단지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시다시피 명확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2장과 1절부터 에베소서 3장과 21절까지가 글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파라나시스(paranasis) 또는 권면 부분이 뒤따라 4장 1절에서 6장과 20절까지 나오는 명령과 명령이 나옵니다. 620은 영적 전쟁 부분을 끝냅니다. 그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가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것입니다. 이는 1세기 편지를 결론짓는 상당히 표준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편지와 야고보의 편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리스-로마 편지의 특정 특징이 누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의 편지에는 구체적인 감사가 없고, 일종의 신학적인 부분이 있고 이어서 권고의 부분이 이어지는 바울의 편지처럼 전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자는 전형적인 1세기 그리스-로마 문자의 모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구절을 해석하는 경우 해당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문자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 중 하나가 확장될 때입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는데, 문안이나 은혜와 평안이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확장할 때, 그가 전형적인 서간체 공식을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어떤 것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다른 저자 중 한 사람이 1세기 편지의 전형적인 요소를 어디에서 취하고 그것을 확장하는지 알아두십시오.

이는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특히 바울의 편지에서 1세기 편지의 특정 특징이 누락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편지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은, 특히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읽었다면 그 편지에 감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흥미롭게도 바울이 확장한 인사말, 서론, 인사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울과 사도는 1장 1절에서 시작하여 이 두 요소가 어떻게 확장되고 누락된 요소도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부터 5장까지는 1세기 편지의 전형적인 특징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모든 형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니라.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 전형적인 사도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사람에게서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이것이 그가 다루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의 반대자들이 그의 사도적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가 다룰 핵심 주제인 핵심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사인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장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현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긴 확장이 이 편지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바울은 어, 이 시점에서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현 악한 시대에서 구원받고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독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현 악한 시대의 범주에 두려고 합니다.

나쁘다거나 악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율법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이 이 악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왜 유대교인들이 복종시키려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여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바울은 독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온다는 주요 특징을 기대하고 논쟁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의 독자들은 현 악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 새 시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고 지배하는 것이 특징적인 특징 중 하나인 노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미 1세기의 전형적인 인사말인 어, 미안하지만 전형적인 인사말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의 편지의 중요한 특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지. 그래서 저는 특정 기능이 어떻게,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방금 말했듯이, 두 번째는 삭제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사이에서 전형적인 추수감사절이 빠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6절은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마도 바울이 왜 추수감사절을 건너뛰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많은 속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났을 것입니다. 너무 긴급한 일이고 어쩌면 독자들이 하는 일에 너무 속상하고 놀라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아마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독자가 기대했을 추수감사절을 건너뛰고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문자의 특정 기능이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 되는지 , 또는 그것이 없을 때, 심지어 그것들이 없어졌을 때, 그 때는 앉아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시간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1세기의 서간 문학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가 서신을 읽고 서신과 편지를 해석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1세기의 마지막 문학 유형이나 장르로 넘어갈 것입니다. 묵시록 또는 요한계시록인 신약성서.